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포어 ☉

성령이여 교동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교회학교별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시작

25일(월)부터 각 교회학교 일정대로

우리교회 교회학교의 수련회가 금주 중 모두 열려 각 교회학교는 지난 순례자에 발표된 일정과 주제에 따라 교회 내에서 배정된 장소에서 이중운 목사와 교회학교 담당교역자를 강사로 모시고 수련회를 갖는다. 교회는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단순한 추억거리를 만드는 자리가 아닌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의 장이 되기를 기도한다.

한편 대학부는 겨울수련회를 가평 송동기도원에서 "성령이여 보게 하소서"를 주제로 지난 2월18일~20일에 개최하였다. 장년부도 수련회를 22일(금)에 교회에서 개최하였다. 사랑부(부장:이승우집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학교를 오늘 개최한다. 비록 하루 동안이지만 기존의 주일예배시간을 연장하여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2시반까지 예배와 찬양, 성경공부, 만들기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다.

부서	일정	장소	강사	주제
유아부	2월25일	702호	이중운목사·조대영전도사	성령안에서 하나가 되어요
유치부	2월25일	706호	이중운목사·이용재전도사	하나님의 사람들
유년부	2월25일~26일	102호	이중운목사·이영희전도사	하나님의 사람들
초등부	2월25일~26일	701호	이중운목사·신미숙목사	성령의 능력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초등부
중등부	2월25일~27일	501호	이중운목사·윤영목목사	하나님의 사람들
고등부	2월25일~27일	601호	이중운목사·이태훈전도사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부	2월28일~3월1일	양평미리내 캠프	이중운목사·정은돈목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사랑부	2월24일	102호	이성득목사	하나님의 사람들

2002년 교사 헌신 예배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

오늘 찬양예배는 2002년 하나님 앞에서 각 교회학교의 교사로 임명을 받은 교사들이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된다.

교회학교 교사는 세상의 그 어느 선생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양육을 맡기신 생명을 말씀과 기도로 돌보게 된다. 성경말씀에도 가르치는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자주 언급될 정도로 그 사명은 막중하다. 교회는 이런 귀한 사명을 받은 교사들이 모여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헌신예배를 통하여 귀한 열매 많이 거두고 양육하는 울 2002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한다. 한편 교사들은 찬양예배시간에 특별순서를 통하여 찬양을 드린다. 연습은 4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터잡은 70인 전도대

연중 무휴로 서울교회 지역전도와 민족복음화의 최전위부대의 역할을 감당해 오던 70인 전도대가 올해도 정예 요원과 더욱 강화된 조직으로 은혜가운데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다. 70인 전도대는 수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토요일에는 오후3시부터 2시간동안 한티공원과 교회인근 상가와 주택, 대치역을 터로 삼고 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대원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편지를 발송하며 양육을 하고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토요일에는 남선교회 중심으로, 수요일에는 교구별 주력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도대의 각 분야에서 동참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2002년 70인 전도대 조직>

- 지도 : 이 규정 목사
- 대장 : 왕 경래 장로 간사 : (수요)위성남 서기: 박한옥
(토요)탁경준 서기: 손대길
- 토요 전도대원 : 왕경래, 탁경준, 박두영, 유근중, 조동완, 손대길, 이순희, 김금준, 이도만, 유을상, 남선교회전도부장, 남선교회원
- 수요 전도대원 : 왕경래, 한정아, 김혜경, 한명순, 이봉선, 위성남, 주화인, 조정옥, 조선영, 김진숙, 진용순, 박한옥, 김영관, 박상희, 김옥순, 박민숙, 김순자, 최희재, 신기숙, 여전도회전도부장, 여전도회원
- 이슬비 전도편지 발송팀 : 박현영, 박순복, 표명자, 한재복, 장선자
- 기록관리팀 : 유숙인 · 중보 기도팀 : 권사회, 권윤경

육사 졸업감사 및 파송예배

2월27일(수) 우리교회 후원으로

매년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세례식을 주관한 우리교회가 올해부터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초급장교로 임관하여 현지로 파송 받는 졸업감사 및 파송예배도 후원하게 되었다.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병생 장로)의 당회보고에 따르면 2월27일(수) 육사 교회당에서 개최되는 졸업감사 및 파송예배에 졸업생 140명과 재학생 9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배시 이중운 목사의 설교가 있게 된다. 교회는 예배후 갖는 환송 만찬에서 졸업생들에게 지휘봉을 선물한다.

스데반회 가족모임 갖는다

-26일(화) 오후 6시 30분-

스데반회는 26일(화) 오후 6시30분 교회에서 가족동반 모임을 갖는다.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기도회와 수련회를 겸한 이번 모임에 스데반회 회원과 가족들의 참석을 바란다.

<비전2020후원자 명단>

- 박정선 (3구좌) 박정자 (1구좌) 박창수 (2구좌) 백영자 (3구좌) 백영희 (3구좌) 서장원 (3구좌) 순병식 (3구좌) 손재겸 (2구좌) 송동선 (3구좌) 송인권 (3구좌) 송혜숙 (1구좌) 신용식 (4구좌) 심금란 (3구좌) 안성희 (3구좌) 오유식 (3구좌) 옥재만 (4구좌) 우지원 (5구좌) 유복달 (1구좌) 유상재 (3구좌) 유숙인 (4구좌) 윤명구 (3구좌) 윤소희 (1구좌) 윤찬오 (3구좌) 이 훈 (10구좌) 이광렬 (5구좌) 이남복 (3구좌) 이남성 (3구좌) 이미송 (3구좌) 이사라 (15구좌) 이승우 (3구좌) 이승희 (2구좌) 이양숙 (3구좌) 이영기 (5구좌) 장낙희 (1구좌) 장명순 (3구좌) 장애희 (3구좌) 장일분 (2구좌) 정동호 (10구좌) 정원조 (3구좌) 계오복 (3구좌) 조봉환 (5구좌) 조정옥 (1구좌) 주경자 (2구좌) 진 돈 (10구좌) 천기성 (3구좌) 최금자 (2구좌) 최문주 (3구좌) 최성옥 (3구좌) 최양진 (3구좌) 최인성 (1구좌) 최임수 (3구좌) 최정숙 (3구좌) 최죽희 (1구좌) 최향봉 (1구좌) 하정자 (3구좌) 한선규 (1구좌) 한중우 (3구좌) 한중표 (3구좌) 홍순복 (3구좌) 홍유식 (3구좌) (다음주에 계속)

<태신자명단>

- 한준수, 박대준, 염준범, 박상옥, 문병규, 최재호, 김아현, 김기재, 박지호, 김관우, 류경희, 전진우, 장진옥, 이진아, 정진옥, 손윤도 (다음주에 계속)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개역개정판 출 20:7)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the Lord will not hold anyone guiltless who misuses his name. (NIV Ex 20:7)

이사야 강해

회개한 자에게 주신 약속

(이사야 57장 14 - 21절)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데 계시지만 지극히 낮은 죄인들의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계시니다. 한 번 잘못하면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통회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죄인이 받는 우주보다 더 큰복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겸손이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잊어버린 생활을 말합니다. 또한 겸손은 자기의 중요성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대로 자기를 알지 아니하며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는 생활입니다. 겸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잡힌바 된 삶입니다.



이종운 목사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을 평탄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한 자는 때리시다가도 때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1.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15절).

15절 상반절은 초월적인 하나님, 곧 존귀하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후반절은 내재적 하나님, 곧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위대한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만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며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내주 하여 계십니다.

'통회하는 자'는 마음에 상처가 난 자, 이미 지은 죄로 인해 심한 고통을 느끼는 자를 말합니다. 옛 자아가 파괴되어 죄악에 대한 고통을 느껴 죄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천로역정이라는 책에서는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을 감옥의 고통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또 회개자의 심리를 근심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죄를 원통히 여기는 근심은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영생을 얻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데 계시지만 지극히 낮은 죄인들의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계시니다. 한 번 잘못하면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통회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죄인이 받는 우주보다 더 큰복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겸손이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잊어버린 생활을 말합니다. 또한 겸손은 자기의 중요성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대로 자기를 알지 아니하며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는 생활입니다. 겸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잡힌바 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성도들은 성공하였을 때에 더욱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위기입니다. 바로 이 때 교만한 마음이 썩되기 때문입니다. 무디 선생은 설교를 한 후 항상 뒷방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그의 겸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나 마음을 낮게 가지는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은 통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 회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17절).

하나님은 우리들의 탐심으로 인하여 노하셨습니다. 탐심은 부당하게 얻으려는 욕심이며 가난한 이웃을 억압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탐욕은 돈을 숭배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골 3:5). 탐욕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는 하나님까지도 물리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탐욕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사 56:11). 목자들에게 탐욕이 있는데 양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루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구히 노를 가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너무 오래 노하시면 그들의 영과 혼이 피곤해질까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므로"(시 103:13-14).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인도하실 것이며 위로하십니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18절)는 바벨론 포로 된 유대인과 그들을 동정하던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위로를 얻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받고도 패역한 자들을(17절) 그의 권능으로 감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19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고칠 수 없으므로 당신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에 진

리의 말씀을 주시어 확실한 것을 말씀하게 하시므로 곧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해방이 와서 평강이 있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함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어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도록 하심을 의미합니다.

3.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20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요동하는 바다처럼 내적으로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은 통회한 자와 겸손한 자와 대조되는 사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면 진흙과 더러운 것이 끝없이 솟구쳐 나옴과 같이 악의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없고 죄와 공포가 끝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인에게는 영원히 평안이 없으니 회개하는 것만이 그의 살길입니다. 악한 자는 바벨론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늘 불안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큰 질병은 불안입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19절).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바로 놀일 것입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기 전에는 폭풍 속에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극복되지 못한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되지 않고 경복되지 않은 마음. 정욕과 욕심이 지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불안하고 시끄럽고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평화롭지 못한 양심을 지니고 다니게 됩니다. 죄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가인처럼 항상 요동하는 땅에서 살뿐입니다. 공포는 즐거움을 교란시킵니다. 빛 가운데 어두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21절).

악인은 하나님과 화해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고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회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하나님은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므로 죄를 떠난 상태, 불안과 공포가 없는 상태에서 희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명제 앞에 매주 수요일예배후면 새벽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701호로 모입니다.

반포동에서부터 시작된 수요일 청년기도모임은 지금까지 계속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5-6명의 인원은 이제 20명을 넘어서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확인하며 만남의 기쁨이 더해 갑니다.

모임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역들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 모든일은 다만 우리의 입술로 품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회입니다.

우리의 무릎꿇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부족한 손을 높이 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함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젊은 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깊은 탄식과 고백은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오른손을 더욱 붙잡아 주십니다. 허우대는 멀정하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문드러진 우리의 내

청년부 수요기도회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순대길(청년부)

면은 수요기도모임을 통한 주님의 보혈로서 어루만져지며 정결하여 집니다. 수요청년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더욱 확인하게 되고 또 청년부의 살아있음은 영적으로 발전합니다. 계속된 우리의 걸음 속에 그리고 저녁 수요기도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광이 더욱 충만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와 강남 땅과 열방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안에서 하나 됨과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수요저녁예배 후 기도에 힘쓰는 청년부 지체들

† 사순절의 의미 †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으로 부활절을 앞두고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절 전야(Easter Eve)까지의 40일 간으로 탄식과 참회의 기간이다.

'재의 수요일'이란 사순절의 첫날로, 옛날에는 이날에 참회자 머리 위에 재를 뿌린 습관에서 유래되었으며 이기간 동안 술과 육식을 금하며,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한다. 통상적으로 헌신, 자제, 금식,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 보내게 된다. 사순절 동안 죄를 참회하고 절제하고, 자기 훈련을 하였으며, 부활절 전까지 육식을 하지 않으므로 경건의 훈련을 하였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상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모셔들였는가 반성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현대의 크리스천은 절기에 대한 의무를 무시코 흘려 버리거나, 무의미하게 보내 버리는 경향이 짙다. 부활절이라 하여 단 하루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보다는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일상 생활 할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다. 따라서, 자기 반성에서 얻은 모순 제거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족예배

교회학교로 가지 않고 먼저 본당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 후에 해당 부서로 가서 분반 공부하는 1부 가족예배는 시작할 당시의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년 차가 되는 지금 예배의 한 형식으로 잘 정착되었다. 그 현상으로 일단은 1부 예배의 교인이 많이 늘어났다. 또 2층에서 예배를 드리던 유·초등부 아이들이 언체부턴가 1층으로 내려와 강단 앞에 옹기종기 앉아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끔씩 목사님께서서는 아이들을 강단으로 불러 올려 질문을 하시며 저들의 집중을 유도하시고 아이들은 오늘은 목사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말씀하시는 내내 눈빛이 초롱거린다. 요즘 이 목사님은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몇 주에 걸쳐 하고 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십계명은 자칫 아이들에게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목사님은 쉽고도 명료하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신다. 1부 예배를 드리는 가정 중에 어떤 분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가족의 믿음이 결속되는 것 같다고 한다. 가족예배의 또 다른 유익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수준 높은 찬양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학교가 현금송을 담당하므로 대예배에서 봉사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나이를 초월하여 주님의 말씀에 동화되는 가족예배, 한 가족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편집부(허숙)



교역자 가정을 찾아서-김은호 목사 가정편

♡ "아나님 딸!" ♡



지난 12월 18일, 서울교회에 부임하신 김은호 목사님은 박수정 사모님과 슬하에 행언(22개월), 수언(10개월), 두딸을 두고 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중, 한 권사님의 소개로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에 골인하신 지 4년이 흘렀다. 4년 동안 화내는 모습을 한번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모님은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전담하시며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보이지 않는 내조를 해오고 있다. 김목사님은 사모님으로부터 늘 인격적으로 성숙한 이의 모습을 본다고 고백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은 목사님 자신에게 항상 도전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신다.

이제 막 말문이 트인 행언이는 "아빠"를 제대로 발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목사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달려나오는 행언이와, 언니처럼 달려나오지 못하고 기어서 아빠를 반기러 나오는 수언이를 보면 목사님의 퇴근길은 늘 나비걸음이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가서 행하라."(마 28:19-20)고 하신 뜻을 따라 이름지은 행언이, "나를 따라오너라"(막 1:17)하신 뜻의 수언이 이름을 보면, 김 목사님 가정의, 주님 뜻을 이루는 가정되기를 소망하는 중심이 엿보인다. 평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제자 된 삶이다. 목사님 가

정의 애창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453장) 역시 이러한 소망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학부와 베드로 남선교회, 뽕뽕 여전도회, 스테반회, 교회 갱신 연구원 및 11, 12교구를 담당하시는 김목사님은 서울교회에 와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린 첫 송구영신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감격에 아직도 마음이 설레이신다고 한다. 깔끔하게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서울교회의 시스템과 각 부서에서 하나의 지체됨이 마치 한 그루의 포도나무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크게 감명을 받으셨다고 한다. 특히 서울교회가 인간적인 목회라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를 지향하고 바른 중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깨어 도전을 주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점이 가슴에 와 닿으신다고, 지난겨울, 목회자 수련회를 통해서 이종운 담임목사님의 abc목회철학을 접하고 배움과 섬김을 동시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뜻깊고 힘차게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김목사님은 특히 모든 가정과 성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 된 삶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는데, 목회자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 된 삶을 좇을 때에 교회와 성도와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임을 기억하자고 하셨다. 목사님 가정이 가훈처럼 늘 목상하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막 1:17) 하신 말씀대로 말이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심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그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을 깨울리 하지 말 것도 권고하셨다.

22개월 된 행언이를 보시는 성도님들은 "너 누구 딸?" 하고 한번 물어보시라. 아직 발음이 서툰 아이는 "아나님 딸!"(하나님 딸)하고 또랑또랑 대답할 것이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고백이 목사님 가정의 기쁨이듯, 하늘 아버지께 천진한 고백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편집부(나소정)

김용호(대학부 회장)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수련회. 그것으로 우리 모습이 보여졌던 수련회. 이것이 이번 수련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여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 가운데 임했는데, 성령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스스로의 내려 놓아야 할 부분들. 내 자신 가운데 철저히 버려져야 할 부분들을 너무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끝없이 도망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복종하는 모습이 내 모습임을 기억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징계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비꾸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약속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었고, 나 자신도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련회 각각의 시간들을 통하여 저를 다시

대학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성령이여 보게 하소서"

자신과의 전투 속으로 밀어 넣으셨고, 결국에는 그것의 승리가 되어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들을 감당해 나가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말씀, 순종의 훈련들을.....

수련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 모든 인생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표현 못할 사랑으로 저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훈련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저의 마음까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빚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까지 연약한 자를 이끄소서.



(위) 출발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종윤 목사 (아래)수련회를 마치며



인터넷 기독교사이트의 문제점 (I)

가상의 공간, 인터넷에 세워진 많은 기독교사이트와 가상교회들, 한동안 3000여개를 육박했던 기독교사이트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기독교 전도사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 또한 지금까지 표출되어진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부 주(註)

요즘 우리가 매일 듣는 말 중 하나는 인터넷이란 말일 것이다. 인터넷(Internet)이란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를 하나로 엮어주는 네트워크이다. 마치 집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통화가 가능한 것과 같은 원리로, 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전 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인터넷상의 컴퓨터와 연결하여 그곳에 있는 정보들을 꺼내어 볼 수 있으며 그 컴퓨터의 이용자와 편지를 주고받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에 벤처의 붐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선교라는 기본 취지를 가진 많은 기독교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지금까지 생겨난 기독교 포털사이트는 갖피플닷컴, 기독교넷, 방주21, 미션랜드넷, 크리스천포털, 한국기독교인터넷TV의 살롬, 세계인터넷선교학회, 한국컴퓨터선교회, 호산나넷, 로고시티, 기독교 인터넷방송국 크리스천 포털 등 10여개가 넘고 있으며 한 동안 3000개를 육박한 적도 있었다. 현재에도 empass나 yahoo에 기독교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수백개의 검색결과가 뜨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 포털 사이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포털 사이트라기 보다는 버티컬 포털 사이트' (편집자 주(註): Vertical portal site 인터넷상의 정보들 중에서 특수한 분야만을 수직으로 꿰뚫어 존재한다는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창으로서의 기능보

다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기독교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능이 더 강조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호산나 넷의 경우, 가입자를 믿음의 군사라고 치칭하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거대한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 포털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이버 가상교회의 난무

2000년 인터넷, 닷컴의 붐이 일 때 신대륙(가상세계)을 그냥 세상사람들 손에 방치해 버릴 것인가? 신대륙을 복음의 영토로 경각해 믿음의 가상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인터넷회사들의 분발이 요청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세상의 인터넷회사들보다 더 멋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독교 네티즌들에게 제공한다면 효과를 예측하기 힘든 선교와 전도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비등했다.

이때 생겨난 것이 각종 기독교 포털사이트와 함께 인터넷 가상 교회이다. 현재까지 가상교회, 성탑교회, 겨자씨교회, 사이버복음교회, 아름다운교회, 인터넷크리스찬 시티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가상교회들이 진정한 예배를 인도하는 가는 의문이다. 한 예로 가상성탑교회의 사이트에 가보면 이러한 글이 눈에 띈다.

<... 무릎 꿇는 마음으로 방언 가득히 성전을 삼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예배순서에 놓고 전심을 다하여 순서대로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안내의 글이 친절하게(?) 적혀있다.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뿐만 아니라 대청부, 초등부, 금요 기도회등의 순서도 있다.

특히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현금순서이다. 현재 사이버

가상교회 중 대다수가 십일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후원금, 찬조금이나 후원회의 명목으로 현금을 온라인, 핸드폰 결제, 카드 결제로 걷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견혀진 헌금이 어디에 얼마큼 어떠한 용도로 쓰여졌는지 헌금들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사이트는 전무하다. 단지 선교와 가상교회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고만 밝히는 것뿐이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예배가 계속 유지된다면 미국의 무교회주의를 불러일으킨 TV교회와 같은 형태로 발전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또한 이 가상교회사이트들은 모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장 20절) 성경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서로 교통함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곳은 없다. 편집부(유은경)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5일(월)명지대 신임교수세미나에서 강연한다. 27일(수)육사졸업·파송예배에서 설교를 한다. 28일(목)장로교 정세성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군선교신학위원회도 소집한다.
- 득남: 정년·김관란성도(1교구)
- 이사: 12교구로 강화원집사, 박승희 집사 031-266-0325 12교구로 김관홍집사, 황인숙집사 031-703-1763 3교구로 조대영전도사 02-451-5980

☞ 금주의 식사제공: 김병숙 권사 · 장석우 집사 가정(어머니 생신 감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2년도 겨울 성경학교 · 겨울수련회를 위하여
2. 21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